

****본 file 은 국제 저명 학술지인 영국 비뇨기 학회지에서 발행하는 세계 포경수술에 관한 책(포경수술에 대한 특집호; BJU International, Vol. 83, Suppl. 1, p 28, 1999 "Male Circumcision: A South Korean Perspective")의 한 장으로 나온 것을 번역한 것임. 본 논문 이전에는 포경수술에 관하여 한국인이 쓴 논문 중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 없었음**

포경수술: 남한의 상황

김대식* 이자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방명걸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의과학 연구센터

초록

세계에 알려진 바와는 정반대로 남한 남성의 대다수는 포경수술을 한다. 포경수술의 빈도는 젊은 남성의 경우 90%나 또는 그 이상일 정도로 매우 높다. 대한민국의 포경수술은 한국전쟁 때 미국인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미국과는 매우 다른 독특한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태어난 후 일주일 정도 안에 수술이 행해지는 미국과는 달리 대다수의 포경수술이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일 때 행해진다는 점이 그렇다. 또한 현재 포경수술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는 반대로 대한민국 포경수술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도 그렇다. 대한민국 포경수술은 실제적으로 한 순간에 시작되어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인구가 5 천만에 이르는 큰 나라의 거의 모든 남성이 포경수술을 받았다는 면에서 최근 세계 의학사에 유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I. 소개

세계 남성의 약 80% 이상은 포경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포경수술을 받는 약 20%의 남성 중 대부분은 회교나 유대교인들이며 종교적 의례로서 행해진다 [1-3]. 종교적 이유 없이 포경수술을 행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세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1-3] 이러한 상식은 사실은 틀린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현재 회교도나 유대교를 제외하면 포경수술의 상대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논문을 읽으면 자명해 지듯이 대한민국은 성인 남성의 포경수술 절대 수 면에서도 아마 세계 1 위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나 지정학적인 면에서의 이웃 나라들 중 유일하게 포경수술을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소수 민족을 제외하면 일본, 중국, 러시아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다 [4].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은 긴 역사를 통하여 1945 년 해방될 때까지 포경수술을 행하지 않았다. 해방 후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동란에 투입된 수십만의 미군들이었으며 미군의 주둔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현시점에서의 대대적 포경수술은 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이며 아마도 1950 년이 대한민국 포경수술의 시발점이라고 보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연령층에 따른 대한민국 남성의 포경수술 빈도와 포경수술이 행해지는 나이를 잠정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개인이 포경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와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들이 연구된다. 덧붙여서 현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대한민국의 신문기사, 의학교과서, 백과사전, 논문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II. 연령층에 따른 포경수술 빈도

저자들은 4 개의 연령 그룹에 대하여 포경수술의 빈도와 포경수술이 행해진 대략적인 시기를 조사하였다. 4 개의 그룹은 (I) 만 16-29 세, (II) 만 30-39 세, (III) 만 40-49 세, 그리고 (IV) 만 50-79 세이었다. 이들 4 개 그룹에 속하는 표본의 수는 그룹 I, II, III, IV 에 대하여 각각 339 명, 123 명, 45 명, 64 명이었다. 조사는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우리는 최근의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속하는 16-39 세의 남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연령이 높은 남성들은 과거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들 고령층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의 포경수술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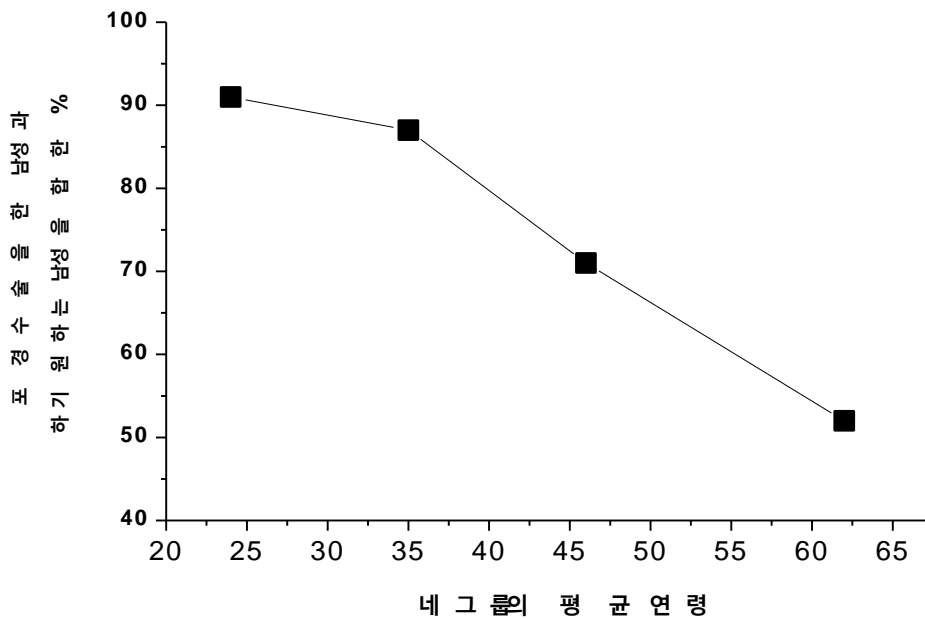
테이블 I

연령	연 표본수 (전체 표본 수=571)	포경수술 했습(%)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기 원함 (%)	포경수술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 (%)
16-29	339	285 (84%)	23 (7%)	31 (9%)
30-39	123	102 (83%)	5 (4%)	16 (13%)
40-49	45	31 (69%)	1 (2%)	13 (29%)
50-79	64	32 (50%)	1 (1.6%)	31 (48.4%)

위의 테이블 I 은 4 개 연령층에 대하여 각각 포경수술 통계를 보여준다. 젊은 연령층의(16 세-39 세; 그룹 I, II) 경우 포경수술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을 확연히 볼 수 있다. 특히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남성의 숫자를 포함시키면 그룹 I 과 II 의 경우 90%정도의 비율로 포경수술을 했거나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현재 회교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일수록 포경수술의 비율은 적어져서 50-70 세의 연령층에서는 약 50%에 달한다.

그림 1 에는 네 그룹의 평균 연령에 대비한 포경수술을 한 남성과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남성을 더한 비율이 나타나 있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포경수술 비율의 감소는 이미 포경수술이 비교적 역사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풍습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 사실을 좀더 명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연령별로 포경수술을 시술 받은 나이를 조사하였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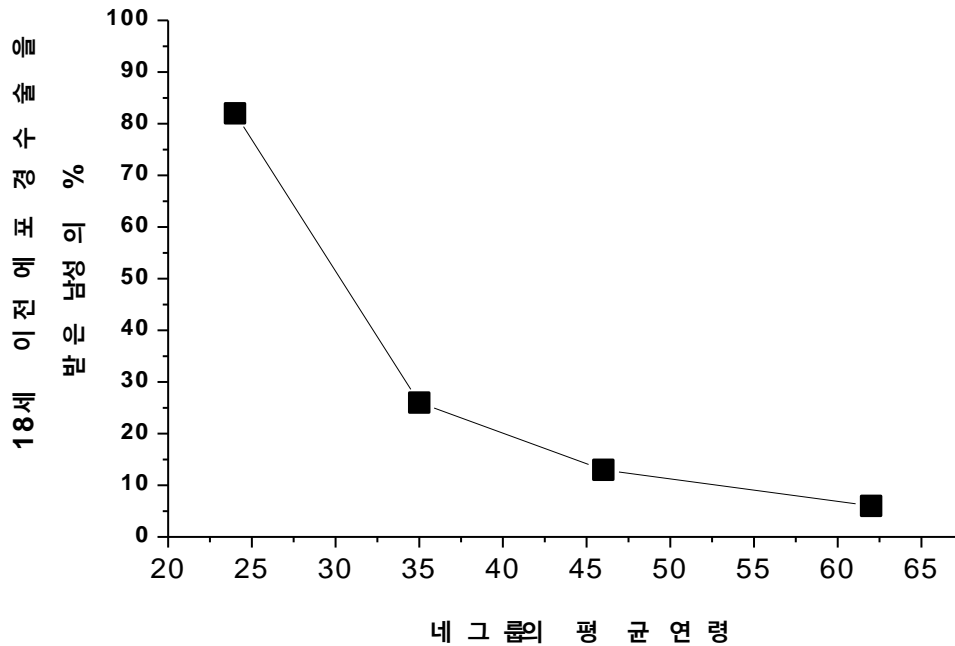
III. 포경수술을 시술받은 연령과 그로부터의 대한민국 포경수술 시발점의 결정

표 II 는 네 개의 연령층에 대하여 포경수술이 시행된 연령을 조사한 것이다. 명확한 것은 그룹 I 의 경우 포경수술이 만 18 세 미만에서 대부분 시술되었음에 반하여 그룹 II, III, IV 의 경우 대부분의 포경수술이 만 18 세 이상에서 시술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고 연령층인 그룹 IV 의 경우 절대다수가 만 18 세 이후에 포경수술을 받았다. 그룹 I 의 경우 포경수술은 18 세 미만의 연령에서 비교적 고르게 시술되었는데 초등 학교일 때가 가장 시술 빈도수가 높았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포경수술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받았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수술 후 집에서 일주일 정도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 결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테이블 II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의 총수	포경수술이 시술된 만 연령				
	6세 미만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또는 그 이상
285 (I)	24 (8%)	90 (32%)	72 (25%)	47 (16%)	52 (18%)
102 (II)	3 (3%)	8 (8%)	6 (6%)	10 (10%)	75 (74%)
31 (III)	0 (0%)	0 (0%)	2 (6.5%)	2 (6.5%)	27 (87%)
32 (IV)	0 (0%)	0 (0%)	0 (0%)	2 (6%)	30 (94%)

그림 2



확실한 것은 그림 2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8 세 미만에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의 비율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현격히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점은 그룹 IV 의 경우 많은 남성이 완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포경수술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점은 다시 포경수술이 역사적으로 매우 최근에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사실은 만 69-79 세의 7 명의 표본을 인터뷰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상기한 7 명중 3 명은 포경수술을 받은 반면에 4 명은 받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일제 때 사춘기를 맞았지만 일제 때나 미군정 때는 포경수술이라는 말을 단지 성경의 "할례"라는 말로 어렴풋이 밖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들 모두 포경수술에 대하여 한국동란 때 또는 그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중 한 명은 한국동란 한국군으로 참전하던 중 포경수술을 받았으며 또 한 명은 한국전쟁 후 군 복무 중 포경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79 세의 한 노인은 포경수술이 한국동란 중에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포경수술을 받은 것은 1960 년대에 신문에 포경수술을 받으면 의학적, 보건적인 면 외에도 정력 증강, 조루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는 대대적인 광고 및 기사들이 나오면서였다는 재미있는 관찰을 해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노인은 자식들이 모두 태어난 한참 뒤인 만 48 세에 포경수술을 받았다.

표 I, II 와 그림 1, 2, 그리고 노인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전쟁이 대한민국의 대대적인 포경수술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결론지을 수 있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군과 미국의 영향이 대한민국 포경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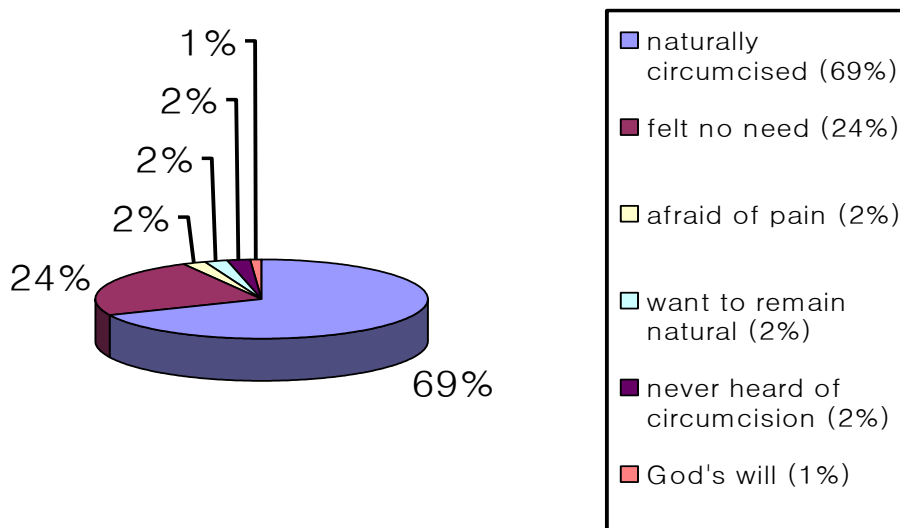
IV. 포경수술을 안한 이유: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어 있다"는 특이한 한국적 개념

젊은 남성의 경우 포경수술의 비율이 이토록 높기 때문에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우선 그들 나름대로의 남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왜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571 명의 남성 중 91 명의 남성이 이 그룹에 해당된다. 이들의 대답을 조사한 결과 연령별로 별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들 91 명은 연령 그룹에 관계없이 같이 묶어서 논한다. 이들 91 명중 과반수를 훨씬 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많은 숫자인 62 명은 "자연포경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자연포경"이라는 말은 그러나 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표현이며 이러한 대답은 "포경" (phimosi)과 포경수술(circumcision)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차원이 다른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다수 남성의 경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길지만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하기로 한다. 22 명은 "필요를 못 느껴서"라고 대답하였다. 남은 7 명 중 2 명은 "고통이 두려워서"라고 대답했고 2 명은 "자연 그대로가 좋아서"라고 대답하였다. 또 2 명은 포경수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1 명은 신의 뜻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 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3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었다"(속칭 "자연포경")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포경수술을 안한 이유



이다. 그러나 이 말은 대한민국 남자가 아닌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이 말에 정확히 대응되는 의학 용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다.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었다"는 말을 통하여 대한민국 남성은 아마도 다음 중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조건을 만족한다고 느끼는 듯하다:

(1) 포경(phimosis)이 없다/아니다; 포경이라는 말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포피가 뒤로 완전히 잡아당겨지지 않고 귀두와 붙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전체 인구의 약 1% 미만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경우에 따라서 포경을 치료하려고 포경수술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포경과 포경수술이라는 말을 혼동되게 사용한다. 즉 경우에 따라서 "포경이 안되었다"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2) 포경이 아니며 더욱이 포피가 상대적으로 짧다.

(3) 발기 시에 포피가 귀두 뒤로 완전히 후퇴하며 따라서 발기 시에는 포경수술을 한 성기와 구별이 안 된다

(4) 발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포피가 짧아서 목욕탕에 가도 포경 수술을 한 남성들과 구별이 잘 안 된다.

재미있는 것은 포경이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성인이 되어서 포경수술을 40 명의 30 대 남성들을 인터뷰하였다. 40 명 모두 포경이 아니었음에도 포경수술을 받았다. 40 명 모두 성인이 되어서 포경이 아닌 상태였다는 것은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다 [5]. 즉 포경은 성인 남성의 1% 또는 그 미만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표본수 40 명에서 한명도 포경이 없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많은 경우는 포피가 너무 길다고 스스로 느끼고 포경수술을 했다. 즉 무슨 이유에서든지 포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어있지 않다"고 느낀 것이다. 포경수술을 안한 이유로 "필요를 못느꼈다"라고 답한 22 명중 상당수는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어있다"라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들 대부분은 실제적 수술이 필요 없이 포경수술을 한 것과 같은 상태라고 믿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 "자연 그대로가 좋아서"라고 대답한 두 명은 상당히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두 명 다 교육 수준이 높았고 유럽과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유럽인과 일본인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에 "아름이 두려워서"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두 명의 경우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고는 느끼지만 이러한 의무감보다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이다.

이 장에서 분명히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할 남성들조차도 어렴풋이나마 포경수술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은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어 있는" 소수에 속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들이 자신들의 포피가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짧다고 믿고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V. 포경수술을 한 이유

우리는 포경수술을 한 450 명의 남성과 앞으로 하기를 원하는 30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왜 포경수술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포경수술을 받은 450 명중 부모가 신생아일 때 포경수술을 시킨 경우는 10 명이 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부모의 조언에 따라서"라는 항목에 포함시킨다. 이들의 설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4 에 요약되어 있다. 가장 빈번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1) 의학적/보건적 이유와 청결유지 (196 명) (2) 남들이 하나까/포경수술을 안한 경우 목욕탕 가기가 창피해서 (124 명) (3) 성기 증대와 정력 증강 (76 명). 다른 이유들로는 "부모의 조언에 따라서" (46 명),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39 명), 피임의 방법으로 (2 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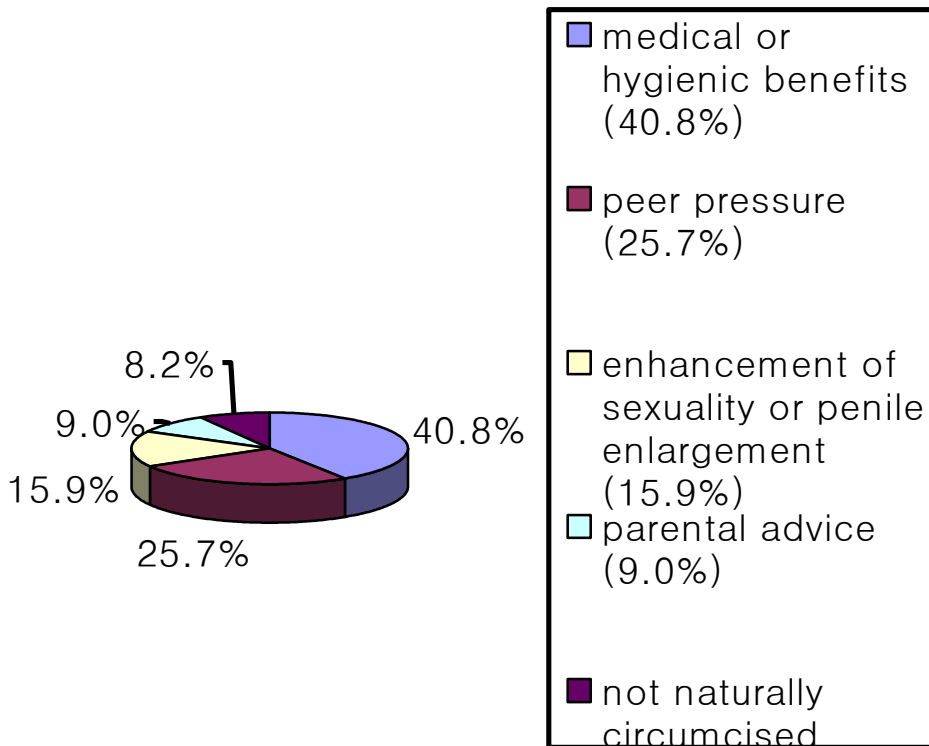
의학적인 이유를 거론하는 경우에 부인의 자궁암 예방, 성병 예방, 성기 청결 유지 용이, 조루 방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루 방지는 위에서 거론한 "정력 증강"에 포함시킬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1)과 (3)은 약간의 겹침이 있음이 드러난다. 앞장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라고 대답한 남성들 중 포경(phimosis)이어서 포경수술을 했다고 대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모두 포경수술 전에도 귀두와 포피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전에 만 19 세에서 31 세의 대한민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포경인 경우가 전체 조사 대상의 0.9% 였다고 결론지었다 [6].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포경은 아니지만 포피가 길다고 느껴서 포경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의학적 이유로 든 것 중 대부분이 예전에 미국사람의 상당수가 지니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재미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대부분은 이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며 자궁암의 경우조차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에서 근거 없으며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고 최

근에 보고했다[7]. 물론 조루의 경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도 인구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적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시 한번 한국 포경수술의 근원지는 미국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4

포경수술을 한 이유



VI. 설문 대상자들이 가진 포경수술에 대한 일반 지식

저자들은 설문 대상자들의 일부에게 세계 남성 중 대다수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질문대상 194 명 중 단지 두 명만이 이 사실에 대하여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한 명은 일본의 공공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한 명은 유럽친구에게 직접 포경수술에 대하여 물어본 후 유럽인이 포경수술을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나머지 192 명은 세계에서 포경수술을 안하는 남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포경수술이 사실상 의무적이라고 믿고 있었고 따라서 세계 공통적으로 시술된다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마도 일부 한국 의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포경수술을 받은 남성들의 대부분이 의사들로부터 거의 아무런 의학적 충고를 받지 않았고 의사들이 단지 이들의 요구에 응하여 수술을 해주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다섯 명의 남성들은 자가포경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포경수술을 시술하였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아마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인 듯하다. 저자들은 만 16-29 세의 남성들에게 한국의 포경수술이 언제쯤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때 시작되었다는 가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볼 때 50 년도 안 되는 동안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포경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시술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50 년 전의 상황과는 현격히 대비된다: 그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의 개념을 제외하고는 포경수술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들어본 적도, 수술을 하는 예를 본 적도 없었다. 다음 장들에서는 현 상황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다

VII. 한국 포경수술에 대한 과거의 연구

저자들은 과거의 한국 의학 잡지들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개의 한국인 의사에 의한 포경수술에 대한 연구를 찾아낼 수 있었다[6]. 한국인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의 포경수술에 대한 연구는 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찾아낼 수 없었다. 참고 문헌 [6]에서는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의 대상이었던 만 19-31 세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포경수술의 유무와 포경(phimosis)의 유무, 또한 포피의 길이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가 수행되던 1971년에는 조사대상인 19-31 세의 남성들 중 약 5%만이 포경수술을 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나머지 95%의 대부분은 그 후에 포경수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중 0.9%가 포경(phimosis)이었는데 이러한 낮은 포경비율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미국, 유럽, 일본의 결론과 비슷하다. 즉 1% 미만의 극소수를 제외하면 성인에게는 어떤 종류의 수술도 필요치 않은 것이다[5, 8-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재미있는 것은 참고문헌 [6]의 저자가 내린 다음과 같은 결론이다. 저자는 약 95%의 포경이 아니고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중 90.4%가 비정상적인 과장포피(redundant prepuce)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질 남성들에 대하여 저자는 이들의 포피가 너무 길며 따라서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이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결론이며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 상태를 수정하기 위하여 절대다수의 성인 남성이 포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경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요즘은 대한민국에서는 과장포피라는 말 대신에 가성포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즉 포경인 극소수의 남성을 "진성포경"이라고 부르며 대부분의 정상인들(참고 문헌 [6]에 따르면 비정상인임)을 "가성포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성포경을 굳이 번역하자면 pseudo-phimosis 가 될 터인데 저자들이 아는 한 그런 말은 세계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정상인을 굳이 "가성포경"이라는 말로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위의 참고 문헌에 나타나 있는 관점은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어있다"는 대한민국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6]은 "정상"상태의 포피가 포경수술을 한 포피와 근사적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포피는 거의 모두 비정상에 속한다. 즉 자연(정상)상태를 비정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상"상태의 포피는 어떠한 모양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연구에서는 매우 짧은, 포경수술을 한 포피상태와 별로 구별이 가지 않는 포피만을 "정상"이라고 본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 중 9.6%가 이러한 "정상"상태에 속한다는 것이 참고문헌 [6]의 결론이다. 따라서 포경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비정상적으로 포피가 길기 때문에 포경수술을 받아야 하는 반면에 약 10%의 남성들은 포경수술을 받지 않아도 "정상"상태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어있다"는 개념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6]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연구에서 약 10.8%의 남성들이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어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매우 잘 일치한다. 아마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며 실제로 포피가 상대적으로 짧은 남성들이 "자연적으로 포경수술이 되어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포경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자들은 한국 포경수술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를 찾아낼 수 있었다 [11]. 이 연구는 1985-1987 년 사이에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미국군과 한국인 카투사 사이에 포경수술을 원하는 이유가 다름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카투사들이 포경수술과 성인의식, 성병 방지, 정력증강 등을 연관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또한 카투사들이 포경수술을 원하는 이유로 "남들이 하니까"라는 것이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군과 다르다고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카투사들의 포경수술 비율이 미국군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

VIII. 한국인 의사들은 교과서, 인터넷, 백과사전 및 신문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현시점에서 저자들이 아는 한 한국인 연구자에 의한 포경수술에 관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예는 없다. 게다가 위 장의 연구 말고는 한국 학술잡지에도 포경수술에 대한 연구가 게재된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저자들은 학술지가 아닌 신문, 백과사전, 인터넷, 교과서등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국 의사들의 포경수술에 대한 태도를 짐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이 대다수의

한국 의사들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일반인들의 포경수술에 대한 태도나 지식(또는 그 지식의 부재)의 근거나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고 문헌 [6]에 나타나 있는 태도는 의사들에 의한 비 학술적인 글들에 관한 별로 바뀌지 않았다. 즉 포경(phimosi)s을 지닌 극소수의 남성과 대다수의 정상적인 남성을 모두 한데 묶어서 "비정상적이고 너무 긴 포피를 지녔으며 따라서 포경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인상을 주는 데에는 별 변화가 없는 듯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의 모든 남성은 포경수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포경수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던지지도 않은 채 언제 해야 하는가만을 제기하는 것만 보아도 확연하다. 한 예를 들면 잘 알려진 교과서 [1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경 또는 과장포피(포경이 없지만 긴 포피)를 가진 사람은 (1) 음경암에 걸리기 쉽고 (2) 여러가지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3) 냄새가 고약하고 (4) 조루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 나타난 설들은 예전에는 미국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믿어졌던 것들이다. 암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미국 암 의학회에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기는 하였지만[7]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반면에 조루에 관한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현재 전혀 언급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위의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포경수술이 정력을 증강시킨다는 설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상당히 널리 퍼져있는 듯하다.

어떤 남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아무런 참고문헌 없이 (참고문헌의 부재는 포경수술에 관한 남한의 모든 글들에 적용된다) "한국인은 거의 다 포경수술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사이트는 다시 "반드시 어떤 정해진 나이에 포경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하는 유명한 사이트[13]는 "비뇨기과에서는 12-14 세가 포경수술의 적기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야기 역시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즉 참고 문헌의 부재라는 말이다.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14]에서는 "자기네 반 아이들이 다 했다고 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한다면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유명한 한국의 한 백과사전은 "조루인 경우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대영 백과 사전에서는 포경수술은 종교적 이유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미국에서도 지금은 포경수술이 줄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남한의 주요 일간지에 나오는 포경수술에 관한 기사들의 제목만이라도 훑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러한 기사들이 남한 의료계의 일반적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일반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은 특히 제대로 된 학술적인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대하므로 조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왜 남한 남성들이 포경수술을 행하는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러한 많은 기사 중 몇 개만 무작위적으로 추려보면:

- (1) 포경수술 12 살 전후 적당 (한겨레 신문 6 월 16 일, 1997; 이 신문은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 (2) 치아교정, 포경수술, 점, 여드름/겨울방학 치료 적기 (동아일보 12 월 21 일, 1996 년)
- (3) 최고령 포경수술환자 (국민일보, 9 월 24 일, 1996) (이 글에서는 어떤 의사가 70 대 노인에게 포경수술을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있다. 이 노인은 병들어 누웠을 경우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 몸이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포경수술을 받았고 의사는 효도하는 기분으로 해주었다고 한다).
- (4) 자가포경수술기 "위험천만" (세계일보 8 월 15 일, 1996)
- (5) 포경수술/출생 직후나 사춘기때냐/의학계 바람직한 시기 싸고 양론 (세계일보, 8 월 12 일, 1995).

"조루증"이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기사는 "포경이나 과장포피는 조루증을 부른다"라고 하고 있다. "자궁암은 환경암, 청결이 최선이다"라는 기사에서는(경향신문 10 월 9 일, 1995) 포경수술을 안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 자궁암의 발생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성은 결혼 전에 포경수술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그래도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모든 남성이 포경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기사들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남한에서는 포경수술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거의 모두의 "전문가"들은 전 국가적인 포경수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한의 대중과 의료계가 지니고 있는 포경수술에 관한 믿음은 예전에 많은 미국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거나 현재 일부의 미국인의 지니고 있던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왜 현재 한국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여 포경수술이 10 대에 주로 행하여 지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언제나 포경수술에 대한 결정이 주로 신생아일 때 이루어 졌었다. 남한에 포경수술이 시작될 때는 주로 성인들이 그 대상이었다. 따라서 단순한 관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최근에 많은 한국인 의사들은 12 살 전후에 포경수술을 권한다. 이것은 재미있게도 단순한 번역의 잘못에서 나온 결론일 수도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신생아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포경수

술을 할 경우 국소 마취제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다. 한국 의사들이 신문에 신생아 때가 아닌 사춘기 전후에 포경수술을 행하여야 한다고 쓸 때 많은 경우는 이러한 미국의 연구를 언급한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에서 말하는 "신생아 포경수술"(neonatal circumcision)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즉 미국에서는 신생아 이후에 포경수술을 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생아 포경수술"의 감소라는 말은 포경수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한국남성 대부분이 포경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포경수술이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분에서만 행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일부 남한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생아 포경수술"의 감소는 곧 그 이후에 언제인가 포경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보면 어떤 신문에서 한 비뇨기과 의사는 "최근에 미국에서도 신생아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때문에 신생아의 포경수술은 줄어들고 있어서 약 60%정도만이 포경수술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계속해서 사춘기 때의 포경수술을 권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최소한 이 의사는 미국의 상황을 잘못 번역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이것은 포경수술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상황조차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IX 결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세계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대부분의 남한 남성들이 포경수술을 받는다는 것을 보였다. 또 포경수술의 연령이 신생아 때가 아니라 주로 사춘기 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였다. 남한의 포경수술에는 세계 의료계에서 전혀 모르는 여러가지 독특한 양상이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 (1) 미국을 통하여 최근에 습득된 것이며 기껏해야 50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 (2)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이 포경수술을 받았다. 20대 남성의 경우 포경수술은 비율은 90%일 수도 있다. 이 비율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제외하면 세계 제 1 위일 것이다. 이러한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포경수술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에 대하여서는 남한 남성들은 거의 아는 것이 없으며 세계 공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믿고 있다.
- (3) 미국과는 달리 포경수술은 주로 사춘기 전후에 행하여진다
- (4) 현 상황은 대중적이나 의료계에서 공개적 토론이 전혀 없이 형성되었으며 포경수술에 대한 결정은 많은 경우 신문 등을 보거나 주위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을 토대로 당사자나 그 부모들이 내린다. 현상황에서는 포경수술은 당연히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며 그 시기만이 문제가 된다.
- (5) 종교적 배경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의 동화 등의 이유에서 사춘기 때에 행하여지며 따라서 통과의례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듯하다.
- (6) 의사들이 말하는 포경수술의 이유는 주로 미국과의 초기 접촉에서 얻어진 듯하며 예전의 미국의 믿음을 반영한다.
- (7) 최근에 감소추세에 있는 미국의 포경수술 비율은 남한의 의료계에 의하여 사춘기 정도에 포경수술을 하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주로 이 논문의 데이터는 서울 근교에서 얻어졌지만 서울 인구의 대부분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출생하였고 따라서 포경수술에 관한 지역차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훨씬 더 일반적인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

X. 감사의 글

저자들은 인터뷰의 일부를 실시한 이자일 군에게 감사한다. 또한 R. Stuart, G. C. Denniston, M. F. Milos, and G. N. Weiss와의 진지한 대화 또한 매우 고맙게 여긴다.

참고문헌

*Corresponding author; denny@phya.snu.ac.kr

- [1] The Complete Book of Pregnancy and Childbirth by S. Kitzinger (Alfred A. Knopf, New York, 1996).
- [2] Circumcision: An American Health Fallacy by E. Wallerstein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80).
- [3] M. F. Milos, "Circumcision: A medical or Human Right Issue?" Journal of Nurse-Midwifery, 37, 85S (1992).
- [4] Dr. P. Y. Yu, Dr. T. Ishihara, Dr. I. Brener and Dr. W. Shan, private correspondences.
- [5] H. Kayaba, H. Tamura, S. Kitajima, Y. Fujiwara, T. Kato and T. Kato, "Analysis of shape and retractability of the prepuce in 603 Japanese boys", J. Urology 156, 1813 (1996).
- [6] K. M. Jung, "A Study on the Foreskin and Circumcision of the Penis of Korean Mal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8, 369 (1971).
- [7] Position of the American Cancer Society, published in Feb. 16, 1996, signed by H. Shingleton and C. W. Heath, Jr. See also <http://www.fathermag.com/htmlmodules/circ/xacs.html>
- [8] Human Sexuality, an encyclopedia edited by V. L. Bullough and B. Bullough (Garland Pub., Inc., New York and London, 1994).
- [9] R. Stuart, in http://www.rrz.uni-hamberg.de/fo-pl/re_oster.html
- [10] G. C. Denniston, "Unnecessary Circumcision", The Female Patient, 17, 13 (1992).
- [11] E. J. Pienkos, "Circumcision at the 121st Evacuation Hospital: Report of a Questionnaire with Cross-Cultural Observations", Military Medicine 154, 169 (1989).
- [12] Andrology by H. Y.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7).
- [13] <http://edunet.nmc.nm.kr/adviso/cd/cd01025.htm>
- [14] <http://kidnet.chosun.com/contest/1110/cagi/main/q9/q9.htm>
- [15] Urology by J. O. Lee, S. J. Lee, J. M. Lee, S. K. Ko, S. E. Chae, H. Choi, and E. S. Lee, (Koryo Medical Press 1996)

그림 및 테이블 설명

Table I: Circumcision rate of four Korean male age groups.

Fig. 1: Circumcision rate including those who wish to be circumcised later, versus median age of the four groups.

Table II: Ages at which circumcision was performed for the four groups I-IV, from top to bottom.

Fig. 2: The rate of circumcision at pre-18 years of age, versus median age of the four Groups.

Fig. 3: The percentages of various reasons cited for remaining uncircumcised.

Fig. 4: The percentages of various reasons for circumcision